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과 수 표현의 특성

남 기 현 (고려대학교)*

원 성 옥 (한국재활복지대학)**

허 일 (한국재활복지대학)**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수화의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bare noun phrase)의 의미 해석과 논항의 수 표현을 고찰하였다. 농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농인들의 언어적 직관에 기초하여 문법성 판단을 이끌어내었다. 연구 결과, 한국수화의 무표 명사구의 단수·복수 해석은 동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며 단수로 해석되었다. 또한 무표 명사구의 의미 해석에서는 언어외적 지식도 관여하였다. 또한 수사(numeral)가 포함된 문장에서 논항의 수에 대응하는 동사의 굴절은 잉여적이며 특히 4 이상의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화 동사의 교차-언어적 연구에 또 하나의 언어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농인들과의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청인들과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농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수 표현에서 한국수화와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 한국수화, 동사, 인칭, 수, 상, 굴절, 무표 명사구

I. 서론

어떤 언어의 연구에서나 동사의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화 연구에서도 동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전통적으로 수화에서의 동사는 동사에 붙는 접사에 기초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Padden, 1990). 첫째 유형은 인칭과 수를 위해 굴절하지 않고 위치 접사를 가지지도 않는 일반동사(plain verbs)이고, 둘째 유형은 인칭, 수, 상을 위해 굴절하며 위치 접사를 가지지 않는 일치동사(agreement verbs)이다.

* 제1저자 (chironam@hanmail.net)

** 공동저자

세 번째 유형은 인칭, 수 혹은 상을 위해 굴절하지 않지만 대신에 위치 접사를 가지는 공간동사(spatial verbs)이다. 미국수화(American Sign Language; 이하 ASL)를 포함하여 각국의 수화들은 이러한 세 가지 동사 유형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Aronoff et al., 2005).

ASL을 대상으로 한 수화연구 초기에, 수화는 복잡한 형태론을 가지며 이 형태적 구조는 동시적이라고 제안되었다. 그 후 수화연구가 진행되고 여러 나라의 수화연구 결과들이 모아지면서 복잡한 형태 구조는 강력한 교차 언어적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일반화에 이르게 되었다(Aronoff et al., 2005). 따라서 시각적-수지적인 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한국수화(Korean Sign Language, 이하 KSL)의 동사가 가지는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도 위에서 언급한 동사 유형 기준(Padden, 1990)을 적용하여 고찰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수화에서의 동사 판별 기준을 알아보고, ASL 동사가 인칭, 수, 상과 관련하여 어떻게 굴절하는지와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한 다음, KSL 동사 유형에 따른 명사구의 해석과 수 표현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KSL 동사의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bare noun phrase)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 둘째, KSL 동사 유형에 따른 논항의 수 표현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동사 판별 기준

ASL은 동사를 결정하기 위해 영어와는 다른 단서를 가진다(Fischer와 Gough, 1978). 두 학자가 제시한 동사를 판별하는 세 가지 단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서는 인칭을 위한 동사의 굴절이다. ASL 동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위한 명백한 형태를 가지며 주어 인칭만이 아니라 종종 목적어, 원천, 목표를 나타내고, 문장의 논항들은 동사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단서는 맥락(context)이다. 문장에서 두 명사 사이에 나타나거나 조동사 뒤에 온다면 그것은 동사이다. 하지만 영어의 have처럼 일부 ASL 조동사는 본동사가 될 수 있고 청자로 하여금 목적어에 적절한 동사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음 (A)에서 밑줄 그어진 동사

는 청자가 읽어야 하는 것이다. (Ab)는 맥락에 따라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으로 이해된다.

- (A) a. IF YOU WANT SEE DENTIST, YOU BETTER APPOINTMENT.
 ‘If you want to the dentist, you better make an appointment.’
 b. THAT BOY WILL DOCTOR.
 ‘That boy will become a doctor.’ (해석1)
 ‘That boy will go to the doctor.’ (해석2)

세 번째 단서는 원어민 화자의 직관이다. 가령 수화자가 NO를 감탄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생각하고 동사로 사용되는 방식을 제시한다면 언어제공자로서 원어민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단서 이외에 Fischer와 Gough(1978)는 (엄밀)하위범주화, 선택제약, 방향성(directionality), 위치성(Locationality), 가역성(reversibility), 크기와 모양의 포합, 방식(manner)의 포합, 상적 표현, 상호성, 재귀동사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그 중에서 방향성과 위치성 그리고 가역성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동사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즉 동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인칭, 수, 상을 위한 굴절 여부는 수화의 동사가 가진 가변성(mutability)-방향성, 위치성, 가역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사의 가변성은 수화에서 동사가 논항 간의 문법적 관계를 보여주는 방식이다(Fischer와 Gough, 1978).

2. 동사와 굴절 형태론

전통문법에서 단어의 내부구조를 연구하는 분야를 ‘형태론’이라 하는데 이는 크게 ‘굴절 형태론’과 ‘파생 형태론’으로 나뉜다. 먼저 굴절 형태론은 시제, 상, 인칭, 수, 성, 격과 같은 문법적 범주들을 나타내기 위해 단어와 결합하는 문법적 표지들의 연구이다. 다음으로 파생 형태론은 동일한 어휘적 어기로부터 또 다른 단어의 형성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청각적-음성적 양식(modality)인 음성언어는 접사화(affixation)를 통해 시제, 상, 인칭과 같은 문법적 정보가 선형적으로 결합되는데 반해 시각적-수지적 양식인 수화는 동사를 통해 실현된다. ASL 동사는 굴절 과정을 통해 직시(deixis), 상호성(reciprocity), 수(number), 배분적 측면(distributional aspect), 시간적 상(temporal aspect)과 같은 문법범주가 표지된다(Klima와

Bellugi, 1979).

본 논문은 KSL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의 해석과 동사의 유형과 논항의 수 표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인칭과 상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선행 연구를 소개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1) ASL 동사의 세 유형

Padden(1990)은 동사에 붙는 접사에 기초하여 ASL 동사의 세 가지 유형을 제안하였는데 아래에 설명과 예를 제시하였다.

- 유형1-일반동사

인칭 혹은 수를 위해 굴절하지 않으며 위치 접사를 가지지 않는다. 일부는 상을 위한 굴절을 가진다. LOVE, CELEBRATE, LIKE, TASTE, THINK, WONDER.

- 유형2-일치동사

인칭, 수, 상을 위해 굴절하지만 위치 접사는 가지지 않는다. GIVE, SHOW, TELL, SEND, BAWL-OUT, INFORM, ADVISE, FORCE, PERSUADE.

- 유형3-공간동사

인칭, 수 혹은 상을 위해 굴절하지 않지만 대신에 위치 접사를 가진다. 공간동사의 하위 종류는 방식과 명사-부류 형태소와 같은 접사들을 첨가한다.

(1) 동사와 인칭

인칭은 화자를 1인칭, 청자를 2인칭, 그리고 담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지만 언급되는 제 3의 사람을 3인칭으로 구별한다. 인칭은 담화 의존적이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에 따라 바뀌게 된다.

전통적으로 ASL에서 인칭은 세 가지 형태 즉 1인칭, 2인칭, 3인칭을 가진다고 기술된다. 1인칭은 수화자 신체 가까운 위치이며, 2인칭은 청자의 방향이고, 3인칭은 수화공간의 다른 위치이다(Padden, 1990). 이와 달리 Meier(1990)는 ASL 인칭을 1인칭과 비-1인칭으로 구별한다. 1인칭이 항상 수화자의 신체 가까이에서 위치하는데 반해 2, 3인칭은 고정된 위치

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Meier의 주장은 고정된 1인칭 대명사 형태 세트가 존재함으로 강력히 지지된다. 대명사 형태는 1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I'와, 1인칭 소유격을 나타내는 'MY', 1인칭 복수 소유격을 나타내는 'OUR'이다. 하지만 Padden(1990)은 어휘부가 세 가지 인칭 범주를 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ASL에서 의미적으로 구별된다고 한다.

언어 중에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논항의 대명사 복사(copy)가 동사에 의무적으로 혹은 수의적으로 접어화되는 언어가 있다. 다음 (B)은 대명사 'I'가 동사에 접어되어 나타나는 불어의 예이다(Klima와 Bellugi, 1979: 398).

- (B) Moi, j'y suis allé, à Paris
 me I-there-be-gone to Paris
 'I went to Paris.'

이러한 특징은 ASL에서도 나타나는데, 음성언어와의 차이는 ASL의 접어화는 동사의 형태 변화로 실현된다는 점이다(Klima와 Bellugi, 1979). 즉 대명사 접어화는 방향(direction)과 방향(orientation)에 따라 굴절 가능한 동사와 굴절할 수 없는 동사(신체 접촉을 가지기 때문에)에서 다르게 표현된다. 일치를 위해 굴절하지 않는 일반동사 중에서 일부는 마치 일치동사처럼 일치 표지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동사에 대명사 접어(pronoun clitics)가 포함된다는 것은 이러한 일반동사에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Padden, 1990). 가령 ASL의 WANT 동사는 마치 일치 표지를 포함하는 것처럼 지표적인 지점(indexic points)을 포함한다. (C)에서 보듯이 WANT 동사는 특정한 위치 a, b에서 두 번 조음된다. 이는 일치동사와 표면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치 형태소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 접어를 포함한 것이다(Padden, 1990). 하지만 문장은 주어를 언급하는지 혹은 목적어를 언급하는지 애매하다.

- (C) WOMAN _aWANT; MAN _bWANT
 a. 'The woman_i is wanting and the man_j is wanting, too.'
 b. 'The woman wants it_i and the man wants it_j.'

(2) 동사와 상

ASL에서 굴절은 상, 수, 배분적 측면을 위해 발생하는데 상 굴절은 수, 배분적 측면의 굴절과 의미가 다르다. 의미의 차이는 형태의 차이로 나타난다. 즉 수, 배분적 측면을 위한 굴절의 가장 명백한 형태적 특징은 수평면과 수직면에서 선, 호, 원을 따라 이동하는 ‘공간적인 패턴’인데 반해, 상을 위한 굴절은 사인(sign)의 움직임의 속도, 긴장, 길이, 방식과 같은 역동적 특성들을 중요하게 사용하며 ‘시간적 패턴’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것이다(Klima와 Bellugi, 1979).

가령 ASL의 LOOK-AT은 검지와 중지만을 펴서 손가락 사이를 벌리고 손바닥을 수화자 눈앞에서 위치했다가 앞으로(밖으로) 직선으로 움직인다. 인용형은 상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굴절한다(Klima와 Bellugi, 1979: 293).

〈표 1〉 ASL의 LOOK-AT 동사의 상 굴절 형태와 의미

	시간 상	사인(sign)의 움직임과 의미
①	LOOK-AT [M: protractive]	움직임 없이 길고 긴장된 정지 (‘오랫동안 누군가를 쳐다보다’)
②	LOOK-AT [M: incessant]	짧고 긴장되고 반복된 움직임 (‘끊임없이 쳐다보다’)
③	LOOK-AT [M: durational]	부드럽고 원형의 반복된 움직임 (‘바라보다’)
④	LOOK-AT [M: habitual]	빠르고 긴장이 없이 반복된 움직임 (‘정기적으로 쳐다 보다’)
⑤	LOOK-AT [M: continuative]	타원형으로 느리고 길고 계속적인 반복 움직임 (‘오랫동안 쳐다보다’)
⑥	LOOK-AT [M: iterative]	느린 타원형 순환으로 긴장되고 끝을 표시하며 움직임 (‘되풀이하여 바라보다’)

(3) 동사와 수

영어를 포함한 인구어에서 단수와 복수는 의미적으로, 통사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는데 반해 한국어는 엄격한 단수와 복수의 구분이 약화되어 나타난다. 즉 (D)문장에서 복수 표시 ‘들’은 의무적이지 않다(강법모, 2007: 4).

(D) 모든/많은/열 명의 아이가/아이들이 놀고 있다.

동일한 음성적·청각적 양식의 언어인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와 더불어 시각적·수지적 양식인 수화는 양식적 특성으로 인해 음성언어와는 다른 문법적 표지를 가진다. 가령 복수 표지가 영어에서는 ‘apple’과 ‘apples’로 한국어에서는 ‘사과’와 ‘사과들’처럼 명사에 표시된다. 하지만 ASL에서는 비록 명사에 수 표지가 있을지라도 모든 맥락에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Klima와 Bellugi, 1979). 어떤 맥락에서는 명사는 비굴절 형태로 나타나고 동사가 수를 위해 굴절 형태를 가진다. 또한 논항의 단수·복수 표지가 동사 형태의 내부적 변화로 이루어진다.

ASL 수 범주는 단수와 복수로 나타난다(Padden, 1990). 복수는 “둘”을 나타내는 양수(dual), “각자”를 나타내는 포괄(exhaustive), “그들”을 나타내는 다수(multiple)를 포함한다. 단수, 양수, 다수를 나타내기 위해 동사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Klima와 Bellugi, 1979).

〈표 2〉 ASL의 수 범주와 동사의 움직임

수 범주	동사의 움직임
단수	단일한 목표 지점을 향한 움직임
양수	두 지점을 향한 움직임
다수 (셋 이상)	호를 따라 단일한 움직임

동사의 굴절은 수 범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동(action)을 위해서도 발생하는데 둘은 상호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개수(numerosity)” 표현으로 함께 취급되어 왔으며 두 굴절은 분리하기 어려워 보인다(Klima와 Bellugi, 1979; 280). 굴절은 동사에 의해 의미된 행동을 구별하는데 초점을 둔다. 가령 동사에 의해 의미된 행동이 분리할 수 없는 전체인지, 아니면 몇 가지로 분리된 행동인지 혹은 행동이 특정 시점에서 발생하는지, 행동이 발생 순서를 명시하는지 등을 구별한다.

2) 동사 유형과 명사구의 해석

술어와 명사의 종류에 따라 배분적(distributive) 해석과 집합적(collective) 해석이 가능하다(이성범, 2003). (Ea)은 둘이서 같이 말다툼을 한 것으로 (Eb)는 각자가 따로 연설한 것으로 추론된다. 하지만 (Ec) 문장은 집합적으로 해석되지만, (Ec) 문장 뒤에 (Ed) 문장이 이어진다면 배분적 해석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술어가 배분적 해석만을 혹은 집합적 해석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배분적 해석과 집합적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 술어와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술어로 나눌 수 있다(이성범, 2003; 201).

- (E) a. 철수와 영호는 말다툼을 했다.
 b. 철수와 영호는 연설을 했다.
 c. 봉수와 창호는 바둑을 두었다.
 d. 그런데 둘 다 반 집 차이로 지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명사의 종류에 따라 집합적 해석과 배분적 해석을 가능하다(이성범, 2003: 202). 즉 ‘The books cost \$25’ 문장은 ‘The set of these books collectively costs \$25’처럼 집합적 해석을 갖거나 ‘Each of these books costs \$25’처럼 배분적 해석을 가진다.

ASL에서 동사 유형에 따라 무표 NP의 양화 값이 해석된다고 제안한다(Petronio, 1995: 603). (Fa)을 보면, 무표 NP가 일반동사와 발생할 때는 단수 혹은 복수로 중의적으로 해석되며, 무표 NP가 일치동사와 발생할 때는 복수 해석을 가진다(Fb). 그리고 공간동사는 무표 NP가 단수 해석을 받는다(Fc).

- (F) a. $\frac{t}{\text{MOVIE, WOMAN LOVE.}}$
 ‘The woman loved the movie.’
 ‘The women loved the movie.’
- b. $\frac{t}{\text{WOMAN, 1INDEX FINISH ASK-[multiple]}}$
 ‘I already asked the women.’
- c. $\frac{t}{\text{aSTORE, WOMAN CL: /1/-'go to'a.}}$
 ‘The woman went to the store.’

ASL 문장에서(F) 대문자는 단어(sign) 혹은 지문자를, 아래첨자는 공간적 위치를, 단어 위의 줄은 비수지적 요소로 '는'는 화제 표지이다. CL:/x/'go-to'는 분류사가 포함된 동사이며 '는' 수형을 나타낸다. 인용부호 안의 내용은 단어의 의미를 기술한다(Petronio, 1995: 616).

Ⅲ. 연구방법

본 논문은 KSL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의 의미 해석과 동사의 유형과 논항의 수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다.

1. 언어제공자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농인은 모두 3명으로 KSL을 제 1언어로 사용하는 20대 여성 1명, 30대와 40대 남성 각 1명씩이다. 이들 언어제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 후~3세 사이에 열병으로 청력을 잃어 언어 습득 전에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 둘째, 어린 시기부터 농 형제와 농 또래들과 수화 등 시각채널을 통해 의사소통하였다. 셋째, 농학교에 입학해서도 구화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수화를 제1언어로 사용하여 학습하였다. 넷째, 농학교를 졸업한 후 현재까지 농 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를 이끌어 내기 위해 3명의 농인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농인들에게 수화로 문장을 제시하여 각 농인이 선호하는 문장의 어순과 의미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하는 문장들에 대한 그들의 언어적 직관에 기초하여 문법성 판단을 이끌어 내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 농인 수화자가 캡코더로 인터뷰 내용을 촬영하였다. 인터뷰는 개인별로 따로 이루어졌으며 대략 1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3. 표기방법

연구자가 농인들에게 제시하였던 수화 문장을 논문에 제시하기 위해 몇 가지 표기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표기 방법은 <표 3>과 같다.

〈표 3〉 표기 방법

항목	표기 방법	예
단어	[] 안에 표기한다.	[여자]
동사 비굴절 형태	아래첨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질문하다]
동사 굴절 형태	아래첨자로 표기한다.	[질문하다] ₁ →a, b
지시 지점	알파벳 소문자(a, b, d ...)로 표현한다. '1'은 수화자를 의미한다.	[질문하다] ₁ →a, b, c
일치동사 이동	동사의 직선 이동을 나타낸다.	[질문하다] ₁ →a
	동사의 반원 이동을 나타낸다.	[보여주다] _{반원} 이동: a→b
수 포함	동사 안에 수 포함을 나타낸다.	[들어가다] ₂
순차적인 어순	연속적으로 배열한다.	[여자] [영화] [좋아하다]
동시적인 어순	'/'로 표기한다.	[1]/[들어가다]

단어(sign)는 한국수화사전(2005)의 표제어를 참고하여 []안에 제시하였고 사전에는 없지만 본 논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설명을 첨언하였다. 단어 산출에서 양손이 사용된 경우 움직이는 손을 우세한 손(dominant hand)으로, 움직이지 않는 손을 비우세한 손(non-dominant hand)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IV. 연구결과

1. KSL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의 해석

Petronio(1995)의 ASL 화제화된 문장(F)에 대응하는 KSL 문장(G)을 KSL 수화자들에게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으로 제시하였다. 문장에서 주어가 단수 혹은 복수로 판단되는지 질문하였고 단수로 이해된다면 복수 형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KSL의 일반동사, 일치동사, 공간동사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G) a. [여자 [영화 [좋아하다
 ‘여자가 영화를 좋아한다.’
 b. [나 [여자 [질문하다]_i → a
 ‘나는 여자에게 질문한다.’
 c. [여자 [가게 [들어가다
 ‘여자가 상점에 들어간다.’

1) 일반동사

일반동사 [좋아하다가 포함된 (Ga) 문장에서 3명의 농인 모두가 여자를 단수라고 응답하였다.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자 [대부분] [영화] [좋아하다라고 [대부분]을 넣어 표현하거나 혹은 수화자의 우세한 손과 같은 쪽의 수화공간에서 반원을 그리며 [숫자_{반원} 움직임: a→b]를 산출한다. [숫자]가 ‘여러 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반원 움직임도 복수를 표시한다. 농인들 간의 대화에서는 한국어의 복수 표지 ‘들’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일치동사

일치동사 [질문하다는 주어와 목적어와 일치하여 움직인다. (Gb)에서 수화자로부터 한 지점으로 이동하는 일치동사를 사용하였고, 수화자들은 여자를 단수라고 응답하였다.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여자 [숫자_{반원} 움직임: a→b] [질문하다]로 표현한다. 이때 동사는 비굴절 형태를 취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우세한 손을 모두 펴서 손가락 간격을 다 벌린 수형으로(손가락을 살짝 구부린 KSL 지숫자 [9]) 하여 수화자의 우세한 손과 같은 쪽의 수화공간에서 반원을 그리며 움직인다. 이때 동사도 비굴절 형태이다. 앞에서 이미 ‘사람이 많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동사는 비굴절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3) 공간동사

공간동사 [들어가다는 비우세한 손을 펴서 ‘집(house)’ 모양의 반쪽을 구성하듯이 고정하여 세우고, 우세한 손을 겹지만 펴서 비우세한 손 안으로 넣듯이 움직인다. 수화자들은 이 문장을 모두 단수로 판단하였다.

2명, 3명, 4명 등의 복수 표현을 위해 사람의 숫자가 증가할 때 수화자마다 다소 다르게 표현하였다. 간략한 표현을 선호하는 수화자는 수 포함(number incorporation)을 취하여 가령 ‘두 명이 들어갔다’를 표현할 때 [2] 수사를 동사의 움직임에 포함시켰다. 즉 [들어가다]/[2]로 표현한 것인데, 이는 비우세한 손은 ‘집’ 모양을 유지하고 우세한 손의 손가락 수만 변화시킨 것으로 상당히 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수화자는 동일한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 [2] [들어가다], [3] [들어가다], [4] [들어가다]와 같이 수사와 동사를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표현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다’의 표현은 수화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우세한 손의 손가락 모두를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린 수형으로 하여 집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비우세한 손 안으로 넣듯이 움직였다.

다음은 ASL 동사 BUY, GIVE, SHOW(Petronio, 1995)와 KSL 동사 [사다], [주다], [보여주다]를 비교하였다.

4) [사다] 동사와 명사구 해석

먼저 KSL [사다] 동사가 포함된 문장에서 무표 명사구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H)에서 KSL 수화자에게 ‘수사+명사’ 어순(Ha)과 ‘명사+수사’ 어순(Hb)으로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KSL 수화자들이 선호하는 어순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그 후에 선호하는 어순으로 다시 제시하여 무표 명사구의 의미 해석을 질문하였다. 가령 ‘두 학생이 책을 샀다’는 수화 문장을 보면서, 수화자들은 ‘두 학생이 각자 책을 산 것’이라고 배분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혹은 ‘두 학생이 함께 책을 산 것’이라고 집단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질문했다.

- (H) a. [2] [학생] [책] [사다]
 b. [학생] [2] [책] [사다]
 ‘두 학생이 책을 샀다.’

세 명의 수화자 모두 [학생] [2]로 “명사+수사” 어순을 선호하였다. 두 명의 수화자는 ‘책을 두 권 샀다’고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책을 한 권을 샀다’고 대답했다. 두 권이라고 대답한 농인 중 한 명은 학생이 두 명이라고 했으므로 책이 두 권이라고 하였다. 한 권이라고 대답한 농인은 문장 구조면에서 보면 학생이 두 명인지 책이 두 권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다. 학생은 두 명이라고 해도 실제로 두 명 중에서 한 사람만 살 경우가 있으므로

책을 정확히 몇 권 샀는지는 애매하다고 하였다.

[사대 동사와 명사구의 해석의 관계를 더 보기 위해 ‘책’ 대신 ‘자동차’로 대체하였다. ‘자동차를 사다’에서 수화자들은 모두 ‘두 대를 샀다’고 하였다. 한 명의 수화자는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고, 두 명의 수화자는 명사구 해석에서 문장의 정보 외의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였다. 즉 자동차를 사는데 가족이라면 한 대를 사지만 가족 외의 친구들은 공동으로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두 명이 자동차 매매소에 갔지만 한 명은 그냥 따라갔을 뿐 사지 않고 한 명만 살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두 명이 각자 산다는 것이다.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위해 KSL 수화자들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경우’와 ‘각자 사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였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는 경우’에는 양손의 검지와 엄지를 원모양으로 손끝을 붙이고 다른 손가락은 편다(KSL 지화 ‘o’). 이 손 모양으로 수화 공간에서 나란히 위치했다가 손목을 동시에 가운데 아래로 움직인다. 반면 ‘각자 사는 경우’는 같은 손 모양으로 수화자의 몸 가까이에서 나란히 위치했다가 몸 밖으로 동시에 이동한 후 엄지와 검지 손끝을 편다. ‘공동’이라는 의미와 ‘각자’의 의미가 공간적으로 분리됨을 알 수 있다.

5) [주대] 동사와 [보여주대] 동사와 명사구 해석

[주대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즉 이중 목적어를 취한다(Ia). 수화자들은 “간접 목적어-직접 목적어” 어순으로 표현했다. 즉 수여자와 수혜자 논항을 먼저 제시한 후 이동의 대상을 그 다음에 표현한다. 또한 어순은 “명사+수사”이다.

학생 수와 책이 동일한지를 질문했다. 두 명의 수화자는 학생 수는 모르지만 각 학생들에게 동일한 책을 5권씩 준 것이라고 하였다. 나머지 한 명은 학생들에게 1권을 준 것인지 5권씩을 준 것인지 애매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책이 동일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르다는 언급이 없었으므로 나누어준 책들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Ib)문장은 [보여주대] 동사가 포함된 문장이다. 우세한 손의 검지와 엄지 끝을 붙여(KSL 지화 ‘o’) 눈 밑에 댔다가 손가락을 풀면서 앞으로 내민다. 수화자 한 명은 문장이 마치 전체 흐름에서 잘린 것 같다고 하였다. 사진은 5장이 확실한데, 사진이 다른지 혹은 같은지 오히려 궁금증이 생긴다고 하였다. 두 명의 수화자들도 사진은 5장이 확실하지만 학생 수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 중 한 명의 수화자는 [보여주대]_{1→a, b, c, d}라는 배분적 움직임으로 인해 5장의 사진을 학생들에게 차례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한 학생이 본 뒤 다음 학생이 보는 것이다.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대]_{반원 이동: a→b}로 한다.

- (I) a. [선생님] [학생] [책] [5] [주다]_{1→a, b, c, d}
 ‘선생님이 각 학생에게 5권의 책을 주다.’
 b. [선생님] [학생] [사진] [5] [보여주다]_{1→a, b, c, d}
 ‘선생님이 각 학생에게 5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2. KSL 동사 유형과 논항의 수 표현

1) 지시 지점과 동사의 논항

일치동사 [부탁하다]를 통해 수화 공간의 지시 지점이 논항의 수를 나타내는지 살펴본다. 동사 옆의 아래첨자에서 숫자 1은 수화자를, 알파벳 a, b는 논항과 연결된 지시 지점을 표시한다. 화살표→는 동사의 직선 이동을 나타낸다. 가령 1→a는 화자인 수화자에게서 지시 지점 a로 동사의 이동을 나타낸다. [내] [선생님]과 [학생] [부탁하다]_{1→a, b} 사이에 짧은 휴지(pause)를 넣어 ‘화자가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탁한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일치동사 [부탁하다]를 논항과 관련된 수평적인 위치들 즉 위치 a로, 위치 a, b로, 위치 a, b, c로 각각 산출하였다. 위치를 하나씩 증가시킴으로써 그에 따라 논항의 수도 증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수화 문장을 제시한 후 학생이 몇 명인지를 질문하였다.

- (J) a. [내] [선생님] 휴지 [학생] [부탁하다]_{1→a, b}
 ‘(나는 선생님이다) 내가 두 명의 학생에게 부탁하다.’
 b. [내] [선생님] 휴지 [학생] [부탁하다]_{1→a, b, c}
 ‘(나는 선생님이다) 내가 세 명의 학생에게 부탁하다.’
 c. [내] [선생님] 휴지 [학생] [부탁하다]_{1→a, b, c, d}
 ‘(나는 선생님이다) 내가 네 명의 학생에게 부탁하다.’

3명의 수화자들은 모두 (Ja)는 2명, (Jb)는 3명, (Jc)는 4명이라고 답하였다. 수평적인 위치 a, b, c, d가 각 학생의 지시 지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학생 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3명까지는 동사의 굴절로 학생의 수를 파악할 수 있지만 4명 이상이 되면 수를 파악하는데 혼동을 준다. 이때는 동사의 굴절보다는 수 표현으로 정확하게 언급하거나 ‘모두’라는 복수 표현(한손의 손가락을 다 펴서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수화 공간에서

반원을 그리며 움직인다)으로 나타낸다. 뒤따라오는 동사는 비굴절 형태를 취한다.

한 장소(a)에서만 동사를 반복적으로 산출한다면 여러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끈질기게 부탁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KSL에서 동사의 굴절로 연결된 지시 지점 a, b, c, d는 각 학생들로 이해된다고 할 수 있다.

2) KSL 동사 유형과 논항의 수 표현

(1) 일반동사

일반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 굴절하지 않으므로 수사가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여 수사에 따른 동사 굴절 형태를 살펴보았다.

일반동사 [읽다와 [자다가 포함된 문장(K)은 ‘선생님 한 분’, ‘선생님 두 분’, ‘선생님 세 분’, ‘많은 선생님’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고양이 세 마리’, ‘많은 고양이’로 수사를 변화시켜서 “명사+수사” 어순으로 제시하였다. 수화 문장을 제시할 때 ‘많은’이라는 관형적 표현 대신 서술적 표현인 ‘학생이(고양이가) 많다’로 하였다. 실제로 농인들은 ‘많은 ○○’은 한국어 어순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많다’라는 문장을 더 선호하였다.

- (K) a. [선생님] [1] [책] [읽다]
 ‘선생님 한 분이 책을 읽는다.’
 b. [고양이] [1] [자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잔다.’

수화자들이 선호하는 “명사+수사” 어순으로 제시했을 때 일반동사 [읽다]에서 한 수화자는 원래의 의도된 의미인 ‘선생님 한 분(두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번(두 번, 세 번) 읽었다’로 책을 읽는 행동의 횟수로 이해했다. 또한 ‘2권’, ‘3권’, ‘많은 책’이라고 책의 수량으로도 이해했다. 이는 [선생님] [1] [책]에서 두 명사 사이에 수사가 나와 혼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화자는 그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선생님 두 분이 책을 읽었다’를 [선생님] [2/사람] [책] [읽다]라는 표현을 제안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수분류사 ‘명’, ‘분’이 일반적인데 반해 KSL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이 예에서처럼 선생님이 두 분인지 책이 두 권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선생님이 한 분일 때는 [1]을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한 수 표현이 없다면 단수로 이해되기 때문에 굳이 [1]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 명의 수화자는 ‘선생님 한분’을 [혼자

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지시]_a [선생님] [혼자] [책] [읽다] 혹은 [지시]_a [선생님] [책] [읽다] [혼자] 어순).

‘선생님 두 분이 책을 읽다’에서 한 명의 수화자는 [선생님] [둘]_a [책] [읽다] ([지시]_a)로 표현했다. 여기서 [둘]은 [2]와 수형은 동일하지만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형태적인 차이가 있다.

‘많은 선생님이 책을 읽다’에서는 한 수화자는 문장이 혼동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선생님] [많다] [책] [읽다]는 ‘많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한 분이 많은 책을 읽는다’고 이해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선생님] [다] [책] [읽다]로 표현을 제안하였다.

(Kb)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자다’라고 할 때 (Ka)와 마찬가지로 [고양이] [혼자] [자다]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수화자들은 고양이가 한 마리일 때도 [1]은 잉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고양이] [자다]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자다’라고 이해된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자다’라고 할 때는 [고양이] [2] [자다]이다. 수화자는 [2] 대신 [둘]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했는데 [둘]이 사람과만 공기할 수 있는지는 더 많은 예를 통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고양이가 자다’는 [고양이] [많다] [자다]인데, ‘많은 고양이가 자다’와 ‘고양이가(한 마리) 오랫동안 자다’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휴지를 통해 문장의 중의적인 해석을 해소할 수 있지만 문장 어순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고양이] [모두] [자다]로 할 수 있다. 한 수화자는 어순을 뒤섞는 표현을 제안했다. 즉 [자다] [사방에 누워있다]_{b, c, d, e} [많다] [지시]_a [무엇] [고양이]_a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사방에 누워있다]_{b, c, d, e}는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누워서 자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양손을 검지와 중지만 펴서 두 손가락을 붙인 후 손등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수화 공간 여러 위치(b, d, c, d)에 양손을 교대로 위치시킨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동사 [자다]를 문두에 주어 [고양이]를 문미에 위치시켰다.

(2) 일치동사

KSL 일치동사 [질문하대]가 포함된 문장(L)을 살펴보도록 한다.

- (L) a. [내 [학생] [1] [질문하다]_{1→a}
 ‘나는 한 학생에게 질문한다.’
- b. [내 [학생] [2] [질문하다]_{1→a, b}
 ‘나는 두 학생에게 질문한다.’
- c. [내 [학생] [3] [질문하다]_{1→a, b, c}
 ‘나는 세 학생에게 질문한다.’
- d. [학생] [많다] [내] [질문하다]_{1→a, b, c, d}
 ‘나는 많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La)의 ‘한 학생’이라는 단수 표현에서 [1]을 생략하는 것이 무방하다. 즉 일치동사 [질문하다]가 학생과 연결된 한 지점을 향하여 수동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표현된 것이다. 즉 동사의 방향성을 통해 이미 ‘한 명’이라는 것이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을 넣는 것은 잉여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1]을 표현하면 ‘질문 하나’라는 의도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게 될 수도 있다.

‘두 학생에게 질문하다’에서 ‘질문 두 가지’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2]보다는 [둘]로 표현한다. 또한 [셋]으로 표현한다. 만약 [질문하다]를 한 지시 지점(a)을 향해 반복하면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다’는 의미가 강하다.

‘많은 학생에게 질문하다’는 [학생] [다] [질문하다] 혹은 [학생] [많다] [질문하다]_{반원 움직임:a→b}로 표현한다.

수화자들에게서 공통적인 것은 [1], [2], [3]과 같은 수사가 표현되면 동사를 수화 공간의 수평적인 각 지점과 일치하도록 굴절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명사의 수가 수사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또 다시 동사가 논항의 수만큼 굴절할 필요는 없다. 또한 [질문하다]의 주어인 [내]는 동사의 방향성으로 표지되므로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공간동사

[주차하다]는 ‘자동차’라는 명사 논항이 동사에 포함된 술어 형태이다. 자동차의 수를 ‘한 대’, ‘두 대’, ‘세 대’, ‘많다’로 증가시켰고 [주차하다]의 위치는 a에서만 한 번 산출하였다. 이는 공간동사 [주차하다]의 굴절 형태와 수사가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 (M) a. [주차장] [자동차] [1] [주차하다]_a
‘주차장에 자동차 1대가 주차해 있다.’
b. [주차장] [자동차] [2] [주차하다]_a
‘주차장에 자동차 2대가 주차해 있다.’

‘한 대’는 앞서 살펴본 ‘한 사람’, ‘한 마리’처럼 무표적으로 취급하였다. 따라서 [1] 없이 [주차하다]만으로도 ‘한 대’라고 해석하였다.

‘두 대’라는 표현에서 한 명의 수화자는 [2]가 있으므로 동사는 비굴절 형태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자동차]/[자동차]로 양손을 동시에 산출하므로 자동차 두 대가 주차됨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때 [둘] [주차하다]는 어색하다고 하였다. 앞서 ‘고양이 두 마리’라는 표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둘]이 사람, 동물, 무생물과 공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본고에서 살펴본 예들로는 제한적으로 보이며 더 많은 예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많은 자동차’는 [많다]라는 어휘 대신 [자동차] 단어를 수화 공간에서 양손을 가깝게 위치했다가 동시에 양옆으로 이동한다. 이는 많은 자동차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화자는 ‘많다’는 의미를 얼굴 표정과 함께 표현하는데 양 볼을 부풀리고 눈을 가늘게 뜬다. 한 명의 수화자는 [주차하다]에서 [자동차] 대신 엄지, 검지, 중지만 펴고 다른 손가락은 접는 손의 모양을 사용하였다(KSL 지문자 [7]). 우세한 손은 [7] 모양으로 하여 비우세한 손바닥 위 위치한 후 압인(stamping) 움직임으로 옆으로 이동한다. 또한 우세한 손을 비우세한 손바닥 위에 댄 채로 우세한 손만 천천히 옆으로 이동한다. 이는 ‘주차장에 차들이 꽂차있는 모습’을 표현한다.

세 명의 수화자 중에서 두 명은 수사와 비굴절 형태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한 반면, 나머지 한 명은 수사와 동사의 굴절 형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V. 결론

본 논문은 KSL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의 의미 해석과 동사의 유형과 논항의 수 표현을 살펴보았다. 두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차례대로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KSL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의 의미 해석을 보면, 세 유형의 동사가 포함된 각 문장에서 수사가 없는 무표 명사구는 모두 '단수'로 판단되었다. 일반동사 [좋아하다]와 일치동사 [질문하다]의 경우 무표 명사가 복수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들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일치동사 [질문하다]는 복수 표현들이 함께 사용될 경우 동사는 비굴절 형태로 나타났는데, 복수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마지막으로 공간동사 [들어가다]는 수 포함이라는 형태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동사 세 유형은 무표 명사구의 단, 복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어휘들이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었다.

세부적으로 동사 [사다], [주다], [보여주다]와 무표 명사구의 해석을 보면 Petronio(1995)가 제시한 ASL 동사 유형에 따른 무표 명사구의 해석과 KSL의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ASL의 동사 GIVE와 SHOW에 대응하는 KSL 동사 [주다], [보여주다]를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KSL 수화자들은 다소 다른 해석을 하였다. ASL 두 동사는 사건 구조가 다르므로 해석의 차이를 야기한다(Petronio, 1995). 가령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구조에서 책을 주는 것은 완성(accomplishment)이며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activity)이다. ASL GIVE 동사가 포함된 (I)문장에서('선생님이 각 학생에게 5권의 책을 주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5권의 책을 5명의 학생에게 5번의 주는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본 연구의 KSL 수화자들은 5권이라고 명시된 수 표현에서 학생 수는 파악할 수 없지만 각 학생들에게 동일한 책이 5권씩 제공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보여주다]_{1→a, b, c, d}가 포함된 KSL 문장(I)과 대응되는 ASL 문장에서('선생님이 각 학생에게 5장의 사진을 보여준다.') 3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5장의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KSL 수화자들은 5장의 사진은 명확히 알 수 있지만 학생 수는 모른다고 하였다. 또한 ASL SHOW 동사가 행위의 사건을 나타내는데 반해 KSL [보여주다]_{1→a, b, c, d} 동사는 배분적 움직임으로 인해 한 학생이 사진을 다 본 후에 다음 학생이 본다고 해석하였다. 사진을 보여주는 사건이 다음 보여주는 사건과 합류된다는 ASL 수화자의 해석과 달리 [보여주다]_{1→a, b, c, d} 동사의 굴절은 한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끝난다는 '완성'의 해석이다.

하지만 KSL [사다] 동사는 ASL 수화자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명사구의 단·복수를 판단한 것과 일치하였다(Petronio, 1995). [사다] 동사는 명사에 따라 의미 해석이 결정되었다. 가령 '두 학생이 책을 사다'와 '두 학생이 자동차를 사다'에서 수화자들은 책과 자동차의 가격 차이와 책과 자동차의 소유관계 때문에 단수·복수 해석을 달리 했다. 즉 자동차

는 가족 외의 사람들이 함께 살 경우 소유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각자 산다’는 배분적인 해석을 하였고 책의 경우에는 배분적 해석과 집단적 해석을 모두 가능하였다.

둘째, KSL 동사 유형과 논항의 수 표현을 보면, 세 동사 유형에서 논항이 하나일 경우는 숫자 [1]을 공통적으로 생략하였다. 명시적인 숫자 표현이 없다면 논항은 단수임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명사와 동사 접사의 양화 값이 일치해야 한다는 ASL의 선행 연구(Petronio, 1995)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치동사였다. KSL에서 수사가 문장에 나오면 동사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KSL 수화자들은 4 이상의 숫자를 표현할 때는 정확한 수를 나타내기 위해 동사의 굴절보다는 수사 표현을 선호하였다. 이때 동사는 비굴절 형태를 취하는데 수사와 동사의 굴절 형태를 함께 표현하면 잉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KSL에서 “명사+수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어순이지만 두 명사 사이에 수사가 올 때는 간혹 오해를 일으켰다. 가령 ‘선생님 한 분이 책을 읽는다’에서 [선생님] [1] [책] 어순이 ‘선생님 한 분’보다 ‘선생님이 책을 한번 읽다’로 이해될 수 있다. 문장 전체 어순에서 선생님을 주어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1]은 주어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목적어에 연결된 것으로 보아 그러한 혼동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KSL 동사 유형에 따라 명사구의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며 논항의 수 표현이 어떠한가를 살펴 본 후에, ASL에서의 명사구 의미 해석과 논항의 수 표현 특성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수화 동사의 교차-언어적 연구에 또 하나의 언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KSL을 사용하는 농인들과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청인들에게 의사소통의 왜곡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와는 다른 수화언어의 특성을 제공하므로 KSL을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학생에게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교수·학습용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KSL을 모어로 사용하는 언어제공자 3명의 언어적 직관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이므로 지역이나 학교, 또는 부모와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이를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수화 코퍼스를 구축하여 그에 기반한 KSL 동사의 상이나 인칭과 관련된 의미 자질과 굴절 형태, 그리고 통사적인 특징을 고찰하는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범모 (2007). 복수성과 복수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3-31.
- 이성범 (2003). *언어와 의미*. 서울: 태학사.
-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5). *한국수화사전*.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 Aronoff, M., Meir, I., Sandler, W. (2005). The paradox of sign language morphology, *Language*, 81(2), pp. 301-344.
- Meier, R. P. (1990). Person deixis in American Sign Language. In S. Fischer and Siple (eds.) *Theoretical issues in sign language research 1: linguis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Fischer, S. and Gough, B. (1978). Verbs in ASL. *Sign Language Studies*, 18, 17-48.
- Klima, E. and Bellugi, U. (1979). *The signs of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adden, C. A. (1990). The relation between space and grammar in ASL verb morphology. In C. Lucas(Ed.), *Sign language research: Theoretical issues*(pp. 118-132).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Petronio, K., (1995). Bare noun phrases, verbs and quantification in ASL. In E. Bach, E. Jelinek, A. Kratzer and H. Partee(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s*. Dordrecht, The Netherlands;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603-618.

〈Abstract〉

Characteristics of Verb Types and Number Expressions in Korean Sign Language

Nam, Ki Hyun*, Won, Sung Ok**, Heo Il**

This study explored meaning interpretations of bare noun phrases and number expressions of arguments, according to verb types in Korean Sign Language(hereinafter, KSL).

Through interviews with deaf people, grammaticality judgment was elicited from linguistic intuitions possessed by deaf people.

Results indicated that singular and plural interpretation of bare noun phrases showed no difference according to verb types and was interpreted as singular. In meaning interpretations of bare noun phrases, extralinguistic knowledge was also involved. In sentences including the numeral, verb inflections corresponding to the number of arguments was redundant; especially, exact number expression was used in order to express plurality greater than 4.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other linguistic data to cross-linguistic study of verbs in Sign Languages. In addition, this study affords data on the differences between KSL and Korean in numeral expressions: firstly to hearing people who need to communicate more clearly with KSL-using deaf people and secondly to instructors who teach Korean to deaf students who use KSL.

key words : Korean Sign Language, verbs, person, number, aspect, inflection, bare noun phrase

* Korea University

**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게재신청일 : 2010. 4. 30

수정제출일 : 2010. 6. 8

게재확정일 : 2010. 6. 17